

WIPO 심포지엄, 세계적 특허출원 지연문제 해결 노력 촉구

지난 9월 18일 종결된 WIPO 국제 심포지엄은 특허출원 지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WIPO의 총재 Francis Gurry는 최초의 지식재산권 기관 심포지엄(Global Symposium for Intellectual Property (IP) Authorities)을 마무리하면서 2007년도 세계 특허출원 지연 건수가 420만 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협력과 지식재산권 기관의 기반 및 관리운영을 현대화하는 모범 사례의 전파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허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특허출원 업무의 공유가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PCT를 업무공유의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의 대표들은 심포지엄에서 원칙적으로 PCT 예비 특허성 보고서(PCT 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s on patentability)를 자신들의 PPH 프로젝트에 통합할 것임을 밝혔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밴쿠버 그룹(호주, 캐나다, 영국)의 상호 검색심사자료 이용 프로젝트, 남미의 검색심사자료 교류 프로젝트(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제휴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의 프로젝트) 등 새로운 업무공유 계획이 발표되었다.

40여 개국의 지식재산권 기관 대표들은 본 행사에서 WIPO의 국가 특허 데이터 수집 시스템인 PATENTSCOPE의 업그레이드, 저개발 국가들의 지식 격차를 줄일 aRDi(개발혁신을 위한 연구자료 이용, Access to Research for Development and Innovation)의 마련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특허 검색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WIPO의 적극적인 특허 법률정보 수집 노력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또한 상표와 산업 디자인 등록, 분쟁 조정 활동, 지식재산권 기관의 재정 관리, 과학기술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 촉진 역할 등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자료출처 : www.wipo.int

타이쇼 제약, 미국 브리스톨사의 아시아 자회사와 대중약 브랜드 매수로 사업 확장 기대

일 본 타이쇼(大正) 제약은 지난 9월 16일 미국의 제약기업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MA : Bristol-Myers Squibb)로부터 OTC 의약품(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대중약)의 상표권 등 브랜드 자산 및 인도네시아 자회사(BMSI사) 주식의 약 98%를 취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취득 대상인 브랜드 자산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해열진통약인 「Tempa」, 외용 소염진통제 「Counterpain」과 같은 상표권, 제품 등록, URL 등으로 취득 가격은 1억 6000만 달러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이러한 OTC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BMSI사의 주식 약 98%의 취득 가격은 1억 5000만 달러로, 매수 총액은 3억 1000만 달러이다.

타이쇼 제약은 이번 매수를 통해 아시아 지역 OTC의약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에는 BMSI사의 생산 설비를 아시아의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타이쇼 제약의 사업을 더욱 발전·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자료출처 : www.bloomberg.co.jp

쓰촨성(四川省) 지식산권국, 「쓰촨성특허보호조례」 수정 좌담회 개최

지 난 9월 15일 쓰촨성 지식산권국은 메이산시(眉山市)에서 「쓰촨성 특허보호조례」 수정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좌담회는 쓰촨성 지식산권국 국장 황핑(黃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황핑 국장은 「쓰촨성 특허보호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은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과 현행 「쓰촨성 특허보호조례」를 바탕으로 쓰촨 특허 보호 업무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쓰촨성 특허보호조례」의 수정에 적극적인 의견과 건의 사항을 교류하였다.

이번 좌담회에는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교육문화위생 위원회, 쓰촨성 고급인민법원, 메이산 인민대회, 메이산시 정부 법제팀, 메이산시 중급인민법원, 메이산시 지식산권국, 메이산시 관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자료출처 : www.sipo.gov.cn

일본 ULDATE, 미국의 MPEG LA와 특허에 관한 일괄 라이선스 제휴

페이턴트 풀 라이선스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MPEG LA와 일본 페이턴트 풀 관리 회사인 ULDATE(United License for Digital Age)는 지난 9월 16일 ULDATE가 MPEG LA사의 MPEG-2 시스템 라이선스와 자사의 ARIB 라이선스를 맞추어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휴대전화 등 휴대기품을 수신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인 「One seg」에 대응한 휴대 전화를 판매하는 일본 기업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One seg」 대응의 휴대 전화는 MPEG-2 시스템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MPEG-2 시스템 규격의 트랜스포트층과 ULDATE의 ARIB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ARIB 「One seg」 디지털 방송 규격 양쪽 모두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One seg」 대응 휴대 전화 기업은 양쪽 규격에서 필요한 특허를 모두 커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라이선스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MPEG LA의 CEO인 Larry Horn은 “이번 제휴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점이 2가지 있다. 우선 두 공동 라이선스 관리 회사가 손을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공동 라이선스에 의해 하나의 제품에서 사용하는 여러 규격에 필수적인 특허를 커버한 공동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것도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ULDATE 주식회사의 나카무라 요시히데(中村嘉秀) 대표이사는 “이번 MPEG LA사와의 시도는 우리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MPEG LA사는 페이턴트 풀 방식에 의한 라이선스 시대를 열고, 특허 라이선스의 시장에서 새로운 효율화를 실현하였다. 향후에는 양 회사가 힘을 합쳐서 제품 라이선스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일괄 라이선스 규격을 가진 양 회사가 공동 체제를 시행하고 시장 수요에 따라 향후 새로운 라이선스 제품을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ULDATE 주식회사는 일본 최대의 페이턴트 풀 관리 회사로, 일본 디지털 방송의 특허 라이선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일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허 일괄 라이선스로 디지털 시대에 빈발하는 특허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을 촉진하여, 비즈니스 발전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하였다. 현재 ULDATE의 페이턴트 풀 특허권자는 15사, 실시권자는 120사 이상이다. ULDATE는 제품 베이스의 페이턴트 풀의 발전에 기여하고, 특허권자 및 기술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출처 : www.uldage.com

유럽특허청장, 특허체계 개선 강조

유럽특허청장 Alison Brimelow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포함한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Brimelow는 2류 특허체제는 돈과 시간의 낭비일 뿐이며 현재 특허제도는 원래 의도한 혁신과 경쟁을 이끌어 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특허제도는 현재 출원물 처리 지연으로 불확실성만을 키우고 있다.

Brimelow는 세계 지식재산권 심포지엄(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lobal Symposium of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ies)에서 보다 적은 수의 우수한 특허출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Brimelow에 따르면 2008년 200,000건의 특허 출원물 중 60퍼센트는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혁신 기업들은 특허 승인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출원 중이라는 사실로 이익을 얻으려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

세계 특허제도의 조화

Brimelow는 그동안 선진국들이 추진해왔으나 개발도상국들의 저항에 부딪혀왔던 특허제도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Brimelow는 특허 제도의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특허 업무의 공유 및 중복된 업무의 제거 등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IP5(중국, 유럽, 일본, 한국, 미국)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협력의 토대는 WIPO의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이 되어야 한다. Brimelow는 특허심사하 이웨이(일부 특허청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PCT를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라 경고하였다.

WIPO의 총재 Francis Gurry의 말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기반시설의 표준화는 출원인과 특허청 모두 비용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권과 경제

로잔공과대학(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의 Dominique Foray는 국제 특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현재 특허체제는 기술과 산업적 차이를 극복할 만한 유연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그러한 유연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라 지적하였다.

자료출처 : www.epo.org

일본 특허청, 특허 기탁이 종료된 세포주의 이용 활성화 촉구

생명과학 분야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은 특허 미생물 기탁 기관의 행동을 정하는 실시 요강을 개정했다.(2009년 경제산업성 고시 제58호, 제59호) 이 개정에 의해 특허 기탁이 종료된 주를 문화 컬렉션(유전자원 보존기관)에 편입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 미생물 기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였다.

일본 특허청 총무부 기획조사과 및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생물화학 산업과에서 게재한 이번 발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미생물 관련 발명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생명과학 분야의 이노베이션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은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 1월에 최종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탁이 종료된 특허 미생물의 경우, 기탁기관에서 가능한 한 공적으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가 제언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 특허청은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의 행동을 정하는 실시 요강을 개정했다. 그 결과, 기존에는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던 특허 기탁 종료 세포주를 문화 컬렉션에 편입시켜 기탁자의 동의 하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 기탁 종료 세포주는 생물자원으로서 일본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여, 특허 기탁이 종료된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ipo.go.jp

영국, HIV 특허 풀의 필요성 시급

GlaxoSmithKline은 HIV약품 특허 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른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야 할 경우 특허 풀은 유용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세 가지 약품으로 하나의 정제를 구성하는 HIV/AIDS 치료용 알약이 그 좋은 예이다.

국제약품구매기구(UNITAID)는 UNITAID의 HIV/AIDS 약품 특허 풀 계획에 대한 GlaxoSmithKline의 관심과 유연한 지식재산권 관리를 환영하였다.

UNITAID 풀은 제약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개발도상국을 위한 복합 약품과 아동용 HIV/AIDS 약품 처방을 촉진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의 이용 편의와 바이러스 저항 위험의 감소를 위해 복합 약품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 약품의 특허는 두 세 곳의 기업들이 따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기업의 계획으로는 실현이 어렵다.

특허 풀 참여 기업들은 로열티를 지급받을 것이며 AIDS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십만 명의 아동을 비롯한 600만 명의 사람들이 AIDS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환자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GSK를 비롯한 다른 AIDS 약품 특허 보유자들이 특허 풀 계획에 참여하여 성공으로 이끌 것을 희망한다.

자료출처 : www.guardian.co.uk

EU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발표문 채택

지난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European Commission Trade Directorate)은 협력 수준을 높이고 법률 조치를 보강하기 위해 유럽 시장 내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발표문(communication on enhancing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채택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위조와 지식재산권 침해가 EU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민간과 각국 정부, 소비자들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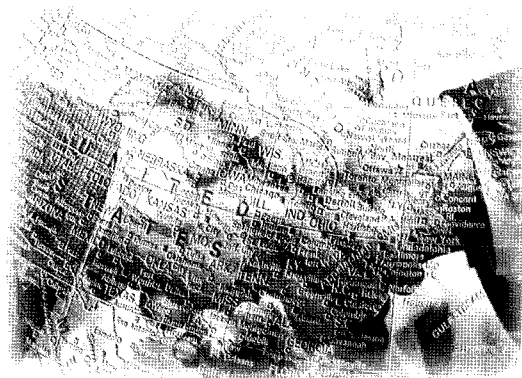
역내 시장 및 서비스 위원회장(Internal Market and Services Commissioner) Charlie McCreevy는 EU의 혁신과 창조를 저해하는 위조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법률이 아닌 기존 법률 하에서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능률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예측 가능한 집행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EU는 2008년 위조 및 지식재산권 침해를 감시하는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치하여 관련자들이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대응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발표문은 또한 27개 EU 회원국들에게 국내 조정관을 임명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전자 네트워크를 마련하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유럽 너머로 확장될 수 있는 자발적인 공동 계획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발표문은 작년에 채택된 집행위원회의 “유럽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IPR Strategy for Europe)”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포괄적인 위조 방지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계획을 위한 유럽 의회 결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인도로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합법적인 제네릭 약품의 압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 음반제작사 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는 이와 같은 발표를 환영하였으나 앞으로 더욱 강력한 법률적 해결책을 주문하였다.

자료출처 : www.ip-watch.org



일본, 휴대전화 관련 업계 및 정부가 참여한 「불법 음악 전송 대책 협의회」 설립

전 기통신사업자협회와 일본레코드협회는 지난 9월 16일,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휴대전화 음악 전송(「착신 벨소리」 불법 전송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불법 음악 전송 대책 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총무성 등 관계 부처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휴대전화 사업자, 음악 권리자 등의 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일본레코드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음악 전송 시장은 해마다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2008년에는 약 905억 엔의 규모에 이르렀으며, 그 중 약 90%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착신 벨소리」 등의 전송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주요 이용 계층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휴대전화용 음원 전송 서비스가 만연하고 있어, 연간 약 4억 건의 불법 음악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고 한다. 이는 정규 음원의 다운로드 건수를 웃도는 수치이다.

이러한 불법 음악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는 불법 음악 파일의 삭제 요청, 악질적인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계발·교육 활동 추진 등을 실시해 왔다. 또한 휴대전화 사업자는 필터링을 보급·계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실시해 왔지만, 산재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일본 총무성은 2009년 4월에 이러한 불법 음악 전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이용자 시점을 감안한 ICT 서비스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회」 산하에 「불법 음악 전송 대책 워킹그룹」을 설치하였다. 이 연구회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필터링 등의 대응책 개선 및 강화, 새로운 방안으로 제안된 휴대전화 불법 음악 이용 방지 기술 등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지난 8월 27일에는 「제1차 제언」을 작성하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설립된 「불법 음악 전송 대책 협의회」는 이 제언을 바탕으로 민간 차원에서 실효성 높은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게이오 기주쿠 대학의 키쿠치 나오토(菊池尚人) 준교수가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사업자, 음악 권리자, 음악 전송 사업자, 정부 관계 부처와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등이 참가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참가도 조정 중에 있다.

- 휴대전화 사업자: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모바일, 이모바일, 월컴 등
- 음악 권리자: 일본레코드협회,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일본음악사업자협회 등
- 음악 전송 사업자: 엠티아이, 도완고 등
- 정부 관계 부처: 총무성, 문화청, 경제산업성

이 협의회에서는 향후 「제1차 제언」의 방향에 근거하여, 2009년 내에 새로운 대책의 방향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합의를 얻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자료출처 : www.yomiuri.co.jp

하이난성(海南省) 판권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 근절 노력

하 이난성 판권국은 인터넷 저작권 보호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8월 하순부터 4개월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정리 활동은 온라인을 통한 영상 전파, 문학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스크랩 등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내용의 합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작품 활동을 규범화하여 원천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문적인 정리활동은 성 전체의 인터넷 기업과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유포 되는 작품이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저작권 부여와 유포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인터넷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선부여 후유포”라는 저작권 유포 질서를 형성하였다. 이번 전문적 정리활동을 통하여 영상, 문학, 기사 등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인터넷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판의 안전을 조사할 것이다.

성 판권국 관계자는 이번 정리활동에서 관리 감독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저작권 및 공안 부서에서 관련 인터넷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만약 기한 내에 정리 작업을 처리하지 못하면 법적 조사 처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들이 인터넷 기업이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시에는 직접 성 판권국으로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www.ncac.gov.cn

미츠비시 중공업, GE가 미 연방지방법원에 추가 제기한 풍차 특허 침해 소송 확인

미 국 제네럴일렉트릭사(GE)는 일본 미츠비시(三菱) 중공업에서 제조하는 2.4MW 가변 풍차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미츠비시 중공업은 지난 9월 9일에 같은 소송 건에 대해 GE가 텍사스주 남부연방지방법원 코파스 크리스티(Copas Cristi) 지부에 추가 제소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

GE는 이번 연방지방법원 제소에서도 ITC 제소와 마찬가지로 3건의 특허에 대해 미츠비시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배상 청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장은 구체적인 배상 청구액을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미츠비시 중공업 측은 미국법에 의해 연방지방법원의 소송은 ITC의 최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GE는 지난 2008년 2월 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미츠비시 중공업을 특허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ITC는 2009년 8월에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미츠비시 중공업에서 제조한 가변 풍차 수입을 금지하는 가결정을 내렸으며, 현재는 ITC 위원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츠비시 중공업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송 제기에 대해서도 자사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 : news.braina.com

오픈 북 얼라이언스, 독점금지법 ·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구글 북 서치 관련 화해안 비판

지난 9월 8일 Microsoft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 북 얼라이언스(OBA : Open Book Alliance)는 Google이 전자 서적 전송 서비스에서 출판사와 담합하여 가격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OBA는 Google의 화해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로, Microsoft 외에도 Yahoo, Amazon, 각종 도서관 및 출판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의견서는 Google이 북 서치 서비스에 대한 소송에서 출판사와 주고받은 화해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안한 것이며, 뉴욕 남부지구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Google과 출판사의 이번 화해 합의에서는 Google이 미국에서 절판된 서적을 전자화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OBA의 의견서는 이에 대해서 "Google과 원고 출판사는 29개월에 걸쳐서 수평적 가격 유지에 대해 몰래 교섭해왔다."라고 하면서 이는 독점 행위에 해당된다고 비판하였다.

OBA는 38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의견서에서 화해 합의는 가격조작과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며, Google과 원고 출판사가 독점금지법과 저작권법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oogle 북 서치 서비스의 화해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관점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법원에 화해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Google의 시스템이 이용자가 검색한 서적과 그 서적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각 페이지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읽었는지 를 감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법원에 Google이 강력한 프라이버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itmedia.co.jp

